

## 現代新儒學者 이남영 선생님

허 남 진

(서울대학교 철학과)

아마 87년 겨울쯤이 아니었나 싶은데 기억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무지하게 추운 날이었다. 한국철학회 이사회를 마치고 있던 것 같은데 총무이사였던 이남영 선생님과 간사였던 필자는 늦은 시간 명동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만 해도 11시 이후에 택시잡기는 전쟁이었다. 선생님을 빨리 보내야 나도 갈 수 있었기에 합승이라도 시켜드리려고 길 복판까지 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같은 방향의 택시를 잡아 선생님을 불렀더니 멀리서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닌가. 그새 택시는 가버리고 답답해진 나는 선생님께 “아니 합승이라도 해서 가셔야지 저도 가지요”하고 은연중 불만을 토로했더니 선생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시길 “내가 요금 다 주고 타면서 기사에게 사정해 가면서 합승해 갈 이유가 뭐 있냐. 나는 빈차를 때까지 기다리다 정식으로 타고 갈테니 빨리 가고 싶으면 너나 합승해서 가라.” 이러시는 거였다. 머쓱해진 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떡하시나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 주위에서 택시 잡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사라지고 몇 사람 남지 않았다. 마침내 빈 택시가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하더니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 서자 선생님께서는 기사에게 갈 수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뒷좌석에 타시고는 유유히 사라지셨다. 택시를 기다린 지 1시간 반만의 일이다.

선생님은 이런 분이셨다. 선생님은 원칙을 중시하시고 권도를 싫어하셨다. 워낙 곧음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엄하기 짝이 없는 스승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농담도 간혹 하시고 제자들과 술도 한 잔 하시며 가끔 아주 가끔은 노래방까지도 함께 가시는 스스

럽없는 친구같은 선생님시기도 하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무서운 건 제자들을 자주 꾸짖어서가 아니라 선생님 당신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시기 때문이다. 때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은 엄격함을 추구하신다. 무슨 일을 맡으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챙기는 것은 물론 초청장의 토씨 하나까지도 점검을 한 다음에야 마음을 놓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남영 선생님이 일을 맡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약속을 지킨답시고 얼렁뚱땅 일을 해치우는 걸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편집에 관련한 중요한 두 책, 『한국철학사』와 『박종홍전집』 두 경우가 다 그랬다. 스승이신 박종홍 선생의 전집을 편찬하실 때에도 이남영 선생님은 조그만 메모하나라도 빠뜨릴까 염려하시면서 완벽에 완벽을 기하셨다. 출판을 자꾸 늦추자 나중에는 유가족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이제 됐으니 인쇄에 들어가자고 재촉할 정도였다. 필자의 추측이지만 한국에서 나온 전집 중 이렇게 자료를 완벽하게 모은 다음 편집에 들어간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엄격함은 선생님의 글과 강의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우선 선생님의 강의부터 살펴보자. 정해진 시간에 단정한 모습으로 약간의 미소를 띠며 강의실에 들어서신 선생님은 출석을 부른 다음 멋들어진 정말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왕희지체의 글씨를 칠판에 훑날리며 진지하게 강의에 임하신다. 선생님께서 요즘은 어떻게 강의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옛날에는 강의시간에 공부 안하고 데모만 하던 당시의 학생이나 그 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여념이 없었던 정부에 분노를 터뜨린 기억은 있어도 한 번의 허튼 소리나 농담으로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마치 연설문을 써 온 듯 쉬지 않고 열변을 토하셨는데 필자가 단언하건대 1분이라도 일찍 끝난 적이 한번도 없었다. 한 번은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선생님께서 수업을 끝내지 않고 계속 ‘조금만 더... 조금 더...’ 하시자 참지 못한 후배들이 S선배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이런 악역을 도맡아 했던 그 선배 왈 ‘선생님, 공부 못해 죽은 귀신 있나요. 날도 어두워지는데 그만하시지요...’ 우리 모두 선배의 말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순간 ‘이 놈들이 공부는 할 생각 않고...’로 시작되는 선생님의 호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는 선배의 경솔한 입을 원망하면서 1시간 이상 혼계를 들은 다음에야 해방될 수 있었다.

선생님께서 글을 쓰실 때 이러한 엄격함은 그 극에 달한다. 추천서 한 장을 쓸 때에도 허투로 쓰는 법이 없었다. 반드시 당신의 정당한 평가를 어딘가에 넣어 한 자 한 자 정성을 다하신다. 얼마나 잘 썼으면 서예가이자 한학자였던 태동고전연구소의 임창순 선생께서 ‘내 평생 이렇게 펜글씨를 잘 쓴 사람은 처음 본다’고 감탄했겠는가. 그렇지만 그 좋은 추천서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아 시간이 급한 학생들은 말도 못하고 속만 태우는 경우도 허다했다. 추천서 한 장을 쓰는데도 이러했을진대 논문을 쓰실 때는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우선 자료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시작을 앉으신다. 선생님 방에 들어가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거의 창고를 방불케 한다. 온 사방에 그리고 책상 중간에 책과 자료가 쌓여 있어 돌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기 힘들 정도이다. 그 자료더미 속에서 선생님은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신 다음 비로소 논문을 쓰기 시작하신다. 일필휘지로 죽 써 내려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음에 들 때까지,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결론을 내릴 때까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신다. 그래서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느 해인지 한국철학회 발표회에서도 선생님이 끝까지 논문을 안 주셔서 결국 발표문을 못 만들고 원고를 바로 복사해 돌린 적도 있다. 원성이 빗발쳤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선생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원칙을 어길 생각은 조금도 없으셨던 것 같다. 그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때는 굉장히 엄한 선생님도 리포트를 늦게 제출하는 데에는 상당히 관대하시다. 이를 이용해 영 안내고 지나간 사람이 있어 탈이지만 말이다.

당신 자신에게 엄하고 당신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평가하셨기에 선생님은 글을 많이 쓰시지 않았다. 그래도 그간 써 놓은 글이 꽤 되는데 아직 부족하다 하시면서 책으로 엮어 내실 생각을 앉으신다. 그 엄함 때문에 쓰다가 만 논문도 수십 편이나 된다고 한다. 선생님 당신에 대한 스스로의 압박은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 탓도 있지만 선생님이 처하신 위치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선생님은 72년 30대 초반이라는 약관의 나이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의 유일한 동양철학 담당교수로 부임하셨다. 그로부터 거의 십 년간을 당신 혼자서 막 출발한 학회를 이끌라 제자들을 키우라 동분서주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의 본래전공은 송명성리학이었으나 그 분야만 가르치고 연구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철학과의 사정이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처음 쓰신 논문제목은 “公孫子の 論理思想”, “中國上代の 汎神論思想 연구”였다. 이처럼 처음 중국고대철학에서 시작하여 송명성리학, 현대신유학에 이르기까지 중국사상의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문을 보면 도교, 불교까지도 연구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박종홍 선생의 뒤를 이어 한국철학의 정립에도 소홀하실 수 없어 한국철학분야에는 더 넓고 깊은 업적을 남기셨다. “檀君神話와 韓國人の 思惟”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한국사상의 시원에서부터 시작하여 화담, 퇴계, 남명, 우암, 호락논쟁 등 한국유학사의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거의 다 다루었고 심지어는 ‘삼국유사와 一然’, ‘고구려의 불교’, ‘한국도교’까지도 연구하신 적이 있다.

연구의 폭이 이렇게 넓다 보니 선생님은 자연히 한국과 중국,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사상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동양철학 고유의 방법론 내지는 문법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일찍이 60년대 말 대만대학에서 중국신유학의 본류를 공부한 후 이를 서양 철학의 엄밀성과 어떻게 관계 지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오시다가 70년대 말 하버드 연청에서 일년간 미국과 중국대륙의 연구동향을 둘러보고 온 후 당신 나름대로의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그 특유의 엄격함 때문에 선뜻 결과를 내놓으시지 않고 집요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만 참 답답하게 느껴지면서도 학자의 신중함은 모름지기 저래야 되지 않나 하는 가르침도 주셨다. 몇 년 전 선생님께서 공자학회 회장을 맡으신 다음 공자철학 방법론에 관한 월례발표회를 야심차게 추진할 때 드디어 선생님의 구상이 실현되나 했는데 선생님은 끝내 만족하지 못했는지 미완으로 남겨 놓고 마셨다. 그리고는 90년대 후반 다시 일본으로 훌쩍 건너가시더니 일년간 일본학계의 특유의 실증주의를 공부하고 오셨다.

생각해 보면 이제 선생님은 연구할 기본을 다 다져 놓은 게 아닌가 한다. 연구 범위로 말할 것 같으면 유학에서 출발하여 불교, 도교까지 다 거쳤고, 연구시기로 말하자면 단군신화에서 시작하여 고구려 불교, 조선시대의 유학, 현대의 신유학자까지 포괄하였으며, 연구방법론으로는 중국과 미국, 일본의 연구경향까지 다 아울렀으니 이만하면 완벽을 추구하는 선생님 특유의 엄격한 기준도 어지간히 충족된 것 같다. 시간의 거센 흐름 때문에 약관의 청년학자가 소장학자가 되고 원로교수가 되더니 이제 정년을 맞으시게 되었지만 선생님의 마음은 아직도 꿈과 성실함, 그리고 그 특유의 엄격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청년의 그것이다. 평생을 慎獨의 자세로 살아오신 한국의 '現代 新儒學者' 이남영 선생님께서 이제는 당신에 대한 그 엄격함을 조금 완화하여 썩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후학을 위해 사유의 편린들을 풀어놓으실 때가 아닌가 한다. 선생님의 정년을 모두 아쉬워하면서도 기대하는 바도 또한 큰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